



전남도-중 저장성 결연 20주년 협약 퍼포먼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중국 위안자전(袁家軍) 저장성 성장이 2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도소리올림터에서 전라남도-중국 저장성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우호교류 심화 협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자매결연 20년 전남도-中 저장성 교류 강화

### 위안자전 성장 방문 '우호 교류 심화 실천' 선언문 서명 지난 25일 최대 투자사 효성그룹 방문...협력 방안 논의

전남도와 중국 저장(浙江)성이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우호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위안자전 성장을 단장으로 한 저장성 대표단은 지난 24-25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우호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중포럼을 추진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며 "양 지방정부는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우호교류를 실천해 여러 분야의 교류를 심화시켜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도와 저장성은 자연환경이 비슷하고 역사적으로도 가까웠다"며 "물길로 다니던 시절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으며, 이제 마음의 물길도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환영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에너지 등 신산업 교류협력 발전 촉진 ▲해양수산업 연구기관 교류 및 환경 분야의 다각적 교류협력 확대 등 3개 항을 선언문에 명시했다.

첫날인 24일 양 지방정부 대표단은 고위급회담을 열어 '우호 교류 심화 실천'을 합의하고, 선언문에 서명했다.

김 지사와 위안 성장성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경제 성장동력 분야와 물·공기·토양·쓰레기 등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지방정부는 선언문에서 "상호존중과 이해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문화·공무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 교류와 한-

김 지사를 저장성에 초청했고 김 지사는 가

까운 시일 내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도청 1층 운선도홀에서 20년 교류 역사의 발자취를 담은 축하 영상과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또 남도소리올림터에서는 양 측 대표와 도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장성 전통예술단의 서커스와 전통 가무, 전남도립국악단의 북춤 공연이 펼쳐졌다.

분야의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전남도와 저장성의 우정은 항상 솔나무처럼 푸르게 자라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방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스포츠 교류 및 예술단 공연 등을 통해 함께 더 발전하고 지역민이 잘 사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협력 하자고 약속했다.

전남도와 저장성은 1993년 우호 교류를 시작했으며, 1998년 자매결연을 한 뒤 매년 청소년 교류, 학술포럼, 예술단 공연 등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저장성장의 전남 방문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05년 당시 저장성 당 서기 신분으로 전남을 방문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전남도와 저장성은 경제·문화·예술·교육·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20년간 교류를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더 강화해 동반 성장을 이루고, 더 나아가 중국과 한국의 국가간 전략적 협력으로 확산·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 성장 등 대표단은 25일 서울로 이동해 효성그룹을 방문한 뒤 26일 출국했다. 앞서 지난 2005년 당시 저장성 당 서기였던 시진핑 주석이 전남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효성그룹을 찾았다. 저장성 대표단이 효성그룹을 방문한 것은 국내 대기업 중 효성그룹이 저장성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그룹은 현재 중국에서 운영하는 10개 법인 가운데 스파텍스공장 등 5개 제조법인을 저장성에 두고 있다.

위안 성장성은 "공동 선언을 계기 삼아 양 지방정부의 산업·무역·관광 교류 등 여러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청년비상금통장 신청 10명중 4명 자산 없어

평균임금 134만원, 나이 26.5세

청년비상금통장을 신청한 광주지역 사회초년생의 평균임금은 134만원이었으며, 10명 중 4명가량은 자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사향으로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75.6%였으며,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가 53.7%였다. 근로기간은 53.0%가 1년 미만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에 바라는 정책지원으로는 청년정책 확대 36.0%, 일자리 창출 13.8%, 저축지원 확대 8.3% 순이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부터 30일까지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자 접수를 받아 신청자 2589명 중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청자의 평균나이는 26.5세였으며, 전체의 90% 가량이 5년 이상 광주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77.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광주시가 올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청년비상금통장은 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의 채무를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소액단기 저축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을 마련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우수을 전국 꼴찌...100억 이상 땅속 사라져

송형일 시의원 지적

광주시의회 송형일(민중·서구제3) 의원은 지난 24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광주시가 상수도 요금은 매년 올리면서 우수율은 여전히 전국 대도시 중 꼴찌이며, 매년 100억원 이상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이 넘는 금액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우수율(有收率)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 수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송 의원은 "광주시 우수율은 2017년말 기준으로 86.7%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이며 연간 누수량은 약 1700만 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00억

송 의원은 "광주시는 2014년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87.97%) 노후관 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우수율이 낮다'며 2015년 8월부터 7.5%, 2016년 5.2%, 2017년 3.9% 등 연차적으로 인상에 2017년 요금 현실화율은 100%를 초과(100.55%)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인사 전횡' 물의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사직서 제출

회계질서 문란과 인사 전횡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직위 해제된 광주디자인센터 박 모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무지시 ▲부적절한 정보인사 운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일자로 박 원장을 직위해제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 22일 디자인센터 이사장인 이병문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 원장의 임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임 등 징계 수위 결정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국제관계대사 정병후 전 대사 임용

광주시는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정병후 전 키르기스스탄 대사(사진)를 지난 24일자로 임용했다.

거점도시로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신임 국제관계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4회에 합격, 1990년 4월 외교부 외무사무관으로 공직에 임명됐다. 이후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장, 주인도네시아 공사참사관,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시는 국제관계대사 임용으로 자치외교 역량강화 및 해외 주요 도시와의 네트워크 확대, 해외 투자유치 창출 등 국제무대

시 관계자는 "정 신임 국제관계대사는 지자체 및 민간 단체의 해외교류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외교환경 속에서 외교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시 외교 역량을 향상시켜 줄 적극적 자"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에너지밸리융합지구·첨단실감콘텐츠밸리 조성 필요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장기 발전 로드맵 용역보고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특화발전사업으로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광주·전남 첨단실감콘텐츠산업밸리,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선도도시 등의 조성과 직류(DC) 기반 개방형 신산업 플랫폼의 구축이 제안됐다. 정주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복합혁신센터 내 어린이·청소년 테마도서관 건립, 원스톱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병원 설립 등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됐다.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24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용역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시시2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한 분야

별 로드맵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수립했으며,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주도 ▲특화발전으로 상생발전 거점화 ▲패작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뿌리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스마트시티 구축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등 5대 분야별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된 혁신도시발전계획은 앞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는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축 등이, 광주·전남 첨단실감콘텐츠산업밸리 조성 사업에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용역 결과를 향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국토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특히 혁신도시가 지역 생태계 혁신주체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화산업, 정주여건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망라하는 중장기(2018-2022년) 종합계획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용역은 ▲미래혁신산업으로 성장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